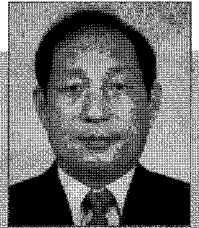


인삼재배는 쉬운가 어려운가

- 초심자의 인삼재배 방법 -



KT&G 중앙연구원 원료연구소장 농학박사 · 유연현

인삼재배 중에서도 병해를 23년간 연구한 본인에게 재배에 관한 글을 부탁하는 뜻밖의 제의를 받고 실로 난감했다.

인삼 병해에 관한 내용이라면 준비된 것들이 여기저기 있으나, 재배에 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는 준비된 것이 별로 없는 형편인지라 사양해 보았지만, 병방제도 재배의 한 부분이라는 논리로 인삼재배에 관한 한 비주류 입장에서 인삼재배 방법을 기술해 보기로 하겠다.

1. 인삼재배는 정말로 어려운가?

이런 질문은 처음 인삼을 재배하려는 사람과 꽤 오래 인삼을 재배한 사람들에게서 자주 듣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금은 어렵지만, 정말로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즉 처음 고추 재배하는 사람에게서 고추재배가 어렵고, 처음 오이를 재배하는 사람에게서는 오이재배가 어렵듯이 처음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에게 인삼재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다만 고추나 오이처럼 1년생 작물이 아니라 4-5년을 같은 장소에서

장기간 재배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된다.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하겠지만 하나씩 짚어보자.

2. 무엇이 문제인가?

오랫동안 많은 인삼 경작인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인삼재배 기술에 대한 생각이 다음과 같이 변화하는 것을 보았다. >

그렇다고 해서 10-15년 인삼을 재배한 중견 경작인이 가장 수량을 많이 내느냐 하면 오히려 초보자가 수량을 더 많이 내고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경작자 마음을 분석해 보



면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것에 긴장한다.

인삼재배 방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에게 모든 일을 물어보고, 상의하고, 알려고 노력한다.

한마디로 몇 번 수확할 때까지 초긴장상태다.

이때는 남의 얘기를 너무 잘 믿어 걱정이다.

그러나 5-6년 재배를 하면서 숙달되고 또 여러 가지 경험(노하우)을 습득 하면서 2-3번 인삼을 수확하다보면 인삼재배도 그렇구 그렇다고 생각하게 된다.

여기가 바로 갈림길이다.

방심하는 사람은 현상유지 아니면 실패의 길로 접어들고,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적당하게 긴장하는 사람은 성공을 향해 갈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경작자가 경험하는 현실이다.

3. 어떻게 해결할까?

인삼은 우리나라 농작물 중에서 유일하게 법령으로 표준인삼경작 방법을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표준인삼경작방법이란 900여년간 우리나라에서 인삼을 재배하면서 다듬어진 표준방법으로, 인삼재배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세세하게 기술하여 초심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내용이다.

1단계 : 초보자 → 아무것도 모르겠다.	(초 긴장)
2단계 : 10-15년 경험자 → 다른 농사와 마찬가지로.	(방심)
3단계 : 20년이상 경험자 → 알다가도 모르겠다.	(적당한 긴장)

표 1. 경작인별 6년생 인삼 생산량

(단위 : kg/90x180cm)

구 분	1980년대	1990년대	2003년
전국 평균	1.2	1.5	2.0
우수경작인 평균	1.5	1.9	3.0
최고 수량	-	-	5.4

인삼재배의 기본

1. 토양
2. 묘삼 / 품종
3. 관리

전국평균 수량이 1980년대 1.2kg에서 2003년 2.0kg로 20년간 0.8kg 증가한걸 보면 인삼재배가 쉽지는 않은 모양이다.

그런데도 인삼 생산량은 경작자간 천차만별이다.

전국평균이 2.0kg인데 비하여 표준방법을 준수하는 모범 경작인 평균은 3.0kg, 거기에 최고수량은 5.4kg(표 1).

차이가 나도 심한 편이다. 가격으로 따지면 2003년도 3등이 kg당 36,800원이었으니까 무려 평당 73,000원(2.0kg) - 198,720원(5.4kg)으로 차이가 났으니 말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예정지 토양에 뭐가 가장 좋으나, 어떤 해 가림 자재가 좋으나에 달려 있는 듯

하다.

이런 세세한 기술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즉 나무는 보았는데 숲을 못 본 모양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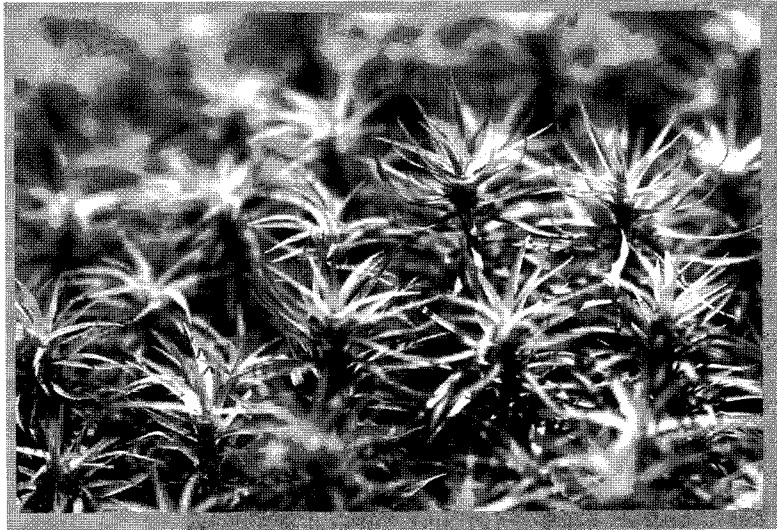
약 15년전 풍기에서 오래 인삼을 재배하신 이삼승 선배님에게 인삼재배의 요체를 물어보았다.

잠깐동안 생각하더니 “토양, 묘삼 그리고 관리”라고 간략하게 말씀하시던 기억이 난다.

좋은 예정지와 묘삼, 그리고 품종을 선별할 줄 아는 식견이 우선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숲이다.

가. 예정지 선정 및 관리에 최우선

첫 번째가 토양이라고 했는데 이는 아마도 밭이라고 해야할 것 같



다.
예전에는 예정지를 선택할 때 흙보다 밭 모양을 더 중시했는데 뒤쪽에 큰 산을 끼고 있는 동북 경사지에 거북등 모양의 밭을 으뜸으로 쳤다. 이유를 살펴보자.

뒤쪽에 큰산이 있으니 토양수분이 적당하게 유지되어 봄에는 가뭄 피해가 적고, 경사지라서 장마철에 침수될 우려가 없는 데다, 거북등 모양이므로 폭우가 오더라도 물이 양쪽으로 나누어 흐를 테니까 토양 유실이 적을 것이 아닌가.

거기에도 동북쪽으로 경사가 겹이니, 즉 동북쪽 방향이 터져 있으니 아무리 뜨거운 여름철이라도 선선한 새벽시간에 햇빛이 깊게 들어와 광합성량이 많아지게 된다.

이런 밭은 복덩어리 밭이다.

헌데 문제는 요즘은 그런 밭을 구

표준인삼경작방법이란 900여년간 우리나라에서 인삼을 재배하면서 다듬어진 표준방법으로, 인삼재배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세세하게 기술하여 초심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경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좋은 밭은 이미 재작지가 되어 버렸고, 이제 초작지라면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그와 비슷하게 만들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예정지를 기경할 때 밖에서 안쪽으로 자주 흙을 모으면서 가운데가 두둑하게 가는 것도 한 방법이고, 동북쪽이 막혀 있으면 4-6월, 9-10월에는 투광량이 조금 많은 해가림을 하고, 고온기인 7-8월에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2중차광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뒤에 산을 만들 수는 없지만 관수 시설을 하고 배수로를 깊게 파서 적정토양 수분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일은 밭의 성질(토양 물리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데 반하여 화학성, 즉 비료성분이나 산성도 같은 성질은 과거에 어떤 작물을 재배하였느냐에 따라 심하게 변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예정지를 선정하기 전에 반드시 주변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어도 토양산도, 염류농도, 인산함량을 분석하여 인삼 심기에 적절한 처방을 하여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격언이 딱 어울린다.

나. 우량묘삼 및 품종 선택

아무리 예정지를 잘 선정하고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잘 못된 묘삼을 심게 되면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특히 연작장해를 일으키는 병원

균은 묘삼을 통해서 먼 거리를 이동한다.

최근에 KT&G 중앙연구원 (구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는 7종의 신품종을 개발하였는데 천풍은 홍삼 제조용으로, 연풍은 대편삼으로, 금풍은 인삼의 유효성분으로 알려진 사포닌 함량이 높은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는 경작자에게 알맞은 품종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다.

다. 결주율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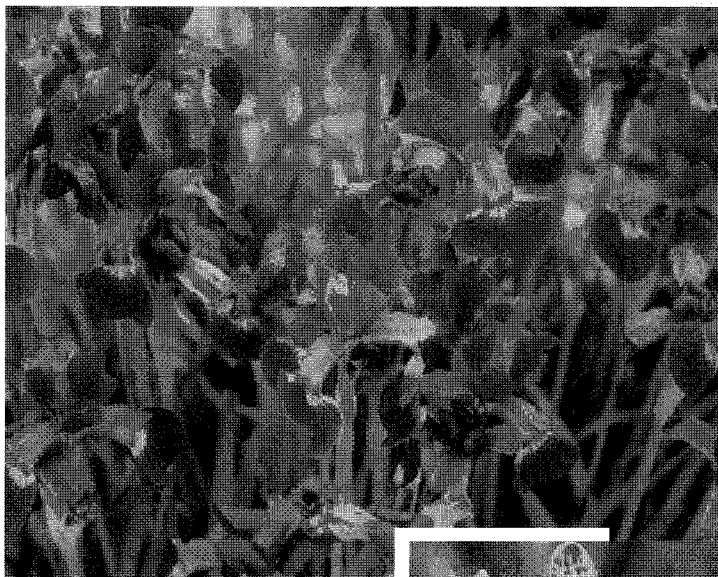
그런 다음에는 4년생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결주율을 줄이는 일이다.

오죽하면 “제발 4년생 개수만큼 그대로 갔으면”하고 바랄까? 고년생에서 발생하는 결주원인을 잿빛곰팡이병에 의한 소위 뇌증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잿빛곰팡이병균은 살아있는 조직을 직접 침입하지 못하고 반드시 죽은 조직을 2차적으로 침입하는 전형적인 순사물기생균(死物寄生菌)이다.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줄기부분이나 뇌두가 먼저 장애를 받고 잿빛곰팡이병균이 뒤 따라 침입하여 결주를 유발한 것이다.

뇌두부분에 발생하는 장애는 토양 표면의 염류집적과 3-4월경 발뇌시 소위 꽃샘추위라는 이상저온에



의한 동해가 주요인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4년생부터 월동 전 상면에 복토를 해주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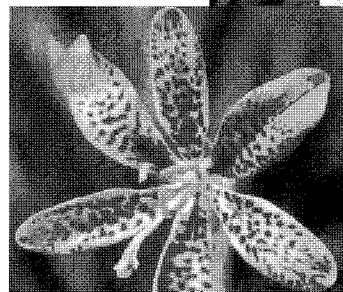
라. 초심자의 마음을 지키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점은 마음이다.

항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인삼이 인삼으로 보여야지, 인삼이 돈으로 보이면 마음이 흐트러지게 된다.

처음에도 기술한 바와 같이 받을 보는 식견과 항상 열린 마음 그리고 다년간의 인삼재배 경험이 어우러질 때 인삼재배는 물 흐르듯 순탄할 것이다.

아무렴 인삼재배가 그렇게 호락호



락하게 쉬을까 만은 그래도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인삼경작자로서 할 일은 다 해 놓고 하늘(자연) 뜻을 기다리는 것이 인삼재배가 아닐까? ☺